

“영산강뷰 따라 타는 라이딩은 최고의 코스죠”

전일엔컬스 주최·전남도 후원
제18회 영산강 자전거 대행진
150명 승촌보 왕복24km 질주

“자전거는 더울 때 탈수록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인 지난 28일 오전, 전남 나주 영산강 자전거길은 6월의 마지막 주말을 즐기려는 라이더들의 열기로 더욱 뜨거웠다.

제18회 영산강 자전거 대행진이 이날 광주·전남 자전거 동호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전남일보가 주최하고 전일엔컬스가 주관했으며, 전라남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영산강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길을 널리 알리고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형형색색의 자전거와 헬멧, 고글, 자전거복 등 각자의 개성을 뽐내는 참가자들은 출발 30분 전부터 영산강 6경 중 하나인 광주 남구 승촌동 승촌보문화관 광장에 모였다. 일부 참가자는 전날 경기도에서 자전거를 싣고 내려왔고, 어떤 이는 광주에서부터 자가용 대신 직접 자전거를 타고 출발해 자전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제18회 영산강 자전거 대행진이 지난 28일 광주 승촌보에서 전남일보 주최·전일엔컬스 주관·전남도 후원으로 열려 광주·전남 지역 자전거 동호인과 일반인 등이 출발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참가자들은 행사 전 포토존에서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자전거 장비를 점검하며 가볍게 몸을 풀었다. 출발 예정 시각을 한참 앞두고도 이른 준비를 마친 이들은 “빨리 달리고 싶다”는 열정으로 들떠 있었다. 오전 9시, 모두가 “안정 라이딩하세요! 파이팅!”을 외치며 소규모 그룹을 이뤄 출발선을 넘었다.

이들은 승촌보문화관을 출발해 영산강 둔치체육공원까지 왕복 24km 구간을 달

렸다.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정도의 더위였지만, 라이딩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마에 땀이 맺히는 순간마다 달리면서 맞는 강바람이 다시 몸을 식혔고, 그 흐름은 반복될수록 상쾌했다. 노란 국화꽃이 피어난 자전거길, 푸른 숲과 탁 트인 풀밭, 시원하게 흐르는 영산강 물줄기까지 더해져 참가자들은 자연과 하나 되는 기분을 만끽했다.

당초 비 예보가 있었지만 급변한 맑은

날씨 덕에 행사는 최상의 조건 속에 진행됐다.

5년 전 제13회 대행진부터 매년 빠짐없이 참가하고 있다는 김경환(70) 씨는 “광주에서 주택관리사로 함께 일하는 6명이 자전거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다”며 “에로사향도 공유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전국 일주도 함께 했는데 영산강길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매년 이 대행진에 꼭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달리기와 수영으로 시작해 이제는 철인 3종경기까지 도전하게 된 참가자도 있다. 광주에서 25년간 일식 조리사로 일해 온 송태길(50) 씨는 “주방 안에서 느낀 갑갑함을 달리기로 풀기 시작했고, 지금은 수영과 자전거까지 병행하고 있다”며 “자전거는 해방감을 주는 운동이라 특히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1월 경남 통영에서 열리는 철인3종경기 참가를 앞두고 있다. 이어 “광주가 ‘대자보’라고 해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데, 아직 자전거도로가 미흡한 구간도 있어 더 잘 관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자전거’를 매개로 대학 시절부터 2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이들도 있었다. 처음 참가했다는 하성보(47) 씨는 “날씨는 정말 더웠지만, 오히려 땀 흘리고 더우려고 타는 거다”라며 웃은 뒤 “기록 경쟁이 없는 행사라 부담 없이 여유롭게 탈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아내와 함께 참가한 정성남(57) 씨는 “수도권은 자전거도로 폭이 좁아 추월 중 충돌 사고가 날까봐 늘 신경이 쓰인다”며 “나주는 처음 왔는데 길도 넓고 숲도 울창해서 정말 좋았다.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우리 속도로 페달을 밟으며, 매일 즐거움을 찾아 나서고 싶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KIA 필승조 정해영·전상현, 나란히 대기록 달성

5년 연속 세이브·개인 통산 100홀드

KIA 타이거즈 필승조 불펜들이 프로야구 역사에 남을 대기록을 쓰고 있다. 정해영은 리그 내 데뷔 후 가장 빠르게 5시즌 연속 20세이브, 전상현은 개인 통산 100홀드를 달성했다.

KIA는 2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LG 트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9-8로 승리하는 동안 선발 김도현을 3.1이닝 만에 강판한 뒤 김대유(0.2이닝), 성영탁(1.2이닝), 전상현(1이닝), 조상우(1이닝), 정해영(1이닝) 순으로 마운드에 올랐다.



정해영

전상현

6회말 2사 1루 상황 마운드에 오른 전상현은 LG 문성주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천성호를 땅볼로 잡아내며 이닝을 종료했고 7회말 이주헌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했으나 홀드 한 개를 추가했다. 이로써 전상현은 KBO 내 19번째로 개인 통산 100홀드를 달성했다.

9회말 마무리로 올라선 정해영은 선두 타자부터 안타를 내준 뒤 2명의 주자를 뜬 공과 삼진으로 깔끔하게 잡아냈고 LG 신민재에게 2루타를 허용하며 2사 2·3루 위기를 맞았지만, 송찬의를 뜬공으로 잡아내면서 세이브를 올렸다. 이날 세이브로 정해영은 리그 역대 3번째로 5시즌 연속 20세이브를 달성했다.

특히 정해영은 앞서 구대성과 손승락과 비교해 가장 빠른 데뷔 6년차 만에 대기록을 썼다.

구대성은 지난 1996년부터 2007년까지(2001년~2005년 해외진출) 20세이브를 달성했고, 손승락도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으로 20세이브를 기록한 바 있다.

민현기 기자



광주FC 신창무가 28일 경기도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1라운드 FC안양과의 원정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한 뒤 세레머니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무패 질주’ 광주FC, 안양 잡고 5위 등극

28일 안양전서 2-1 승리

광주FC가 안양전도 승리로 장식하며 최근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5위로 뛰어올랐다.

광주는 지난 28일 경기도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1라운드 FC안양과의 원정 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무패 행진을 달린 광주는 이번 승리로 승점 3점을 추가로 쌓으며 8승 7무 6패·승점 31점으로 울산 HD(8승 5무 6패·승점29점)를 넘어서 5위로 도약했다.

광주는 이날 경기에 4-4-2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헤이스와 신창무가 투톱을 형성했다. 아사니, 최경록, 이강현, 정지훈이 미드필더로 나섰다. 조성권, 진시우, 변준수, 민상기가 수비를 맡았고 골문은 노회동이 지켰다. 경기 초반부터 안양을 상대로 강한 압박을 강행한 광주는 전반 11분부터 리드를 잡았다. 아사니가 페널티 박스 오른쪽

측면을 흔든 뒤 슈팅 대신 뒷쪽에 있던 신창무에게 패스했고 신창무가 강력한 원발 슈팅으로 안양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35분 정지훈의 슈팅이 수비수에게 막히면서 아쉬운 장면이 연출됐으나 초반부터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한 아사니, 신창무가 다시 한 번 힘을 합쳤다. 전반 37분 이번엔 신창무가 침투한 아사니에게 날카로운 패스로 공을 전달했고 아사니가 원발로 반대쪽 골대 구석에 찔러 넣으면서 추가점을 획책했다.

전반 41분 안양 채현우가 김동진의 오버래핑 패스를 받아 원발 슈팅으로 한 골을 만회했으나 전반 추가 시간 공 경합 과정에서 안양 마테우스가 최경록의 허벅지를 발로 가격해 즉시 퇴장당하면서 광주가 수적 우위를 점했다. 이어 후반 9분 광주는 정지훈, 이강현, 신창무를 내리고 오후성, 주세종, 박인혁을 투입하며 공격화로 변화를 시도했으나 추가 득점 없이 경기가 마무리됐다.

민현기 기자

광주FC 재정난 속 팬들 9600만원 후원

홍보대사 조빈, 모금 11일만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FC를 위해 광주FC 홍보대사이자 가수 노라조 멤버 조빈이 후원계좌를 만들어 11일 만에 9600만원을 모았다.

조빈은 지난 16일부터 ‘광주를 위한 사람들’이라는 신설 SNS 계정과 자신의 SNS에서 홍보하는 방식으로 광주FC를 위한 후원 모금에 나섰다.

후원금은 광주FC의 감독과 선수들에게 ‘그대들은 혼자가 아니다’, ‘언제까지 항상 함께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금된 금액은 광주FC에 투명하게 전달해 이적시장에서 선수들을 확

보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조빈의 설명이다.

이에 계좌가 열린 첫 날인 지난 16일에만 829만원이 모였고, 지난 27일 오후 9시 기준 9664만1100원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적게는 천원 단위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쾌척했고 조빈과 이정호 광주FC 감독도 각각 1000만원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광주는 후원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광주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 기부금을 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광주가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을 통해 수령해야만 하지만 이마저도 절차가 까다롭다. 각 기부금 단체는 목적 사업에 맞는 기부금을 받고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기부금을 수령한다 할 지라도 광주는 ‘하드캡’에 따라 선수 영입도 어렵다. 광주에 적용된 하드캡은 선수 인건비 상한선이 고정돼 추가 증액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이미 재정 관리 문제로 광주는 올해 초 연맹에 제출한 예산 계획에 따라 선수 인건비 상한이 고정된 하드캡이 적용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는 후원금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는 입장으로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현기 기자